

## ‘TK 통합 특별법’ 연말까지 제정 속도낸다

이철우 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장관·우동기 위원장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 논의  
정부가 상·하향 부합 필요 공감  
행·제정 지원 등 특례 부여 검토  
법정부 통합지원단 구성 예정

4일 정부서울청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법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

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농촌협약공모 ‘을킬’ 국비 2100억원 확보

7개 시·군 모두 선정... ‘전국 최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증가 가장 큰 성과  
농식품부와 협약, 내년부터 5년간  
부족한 정주기반 개선·서비스 공급

경북도가 2024년 농촌협약공모에서 7개 시·군이 선정되면서 농촌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비 2100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협약공모에 선정된 9개 시·도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 및 시·군 공동 투자로 365 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상주시가 지난 2020년 농촌협약 시범 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2021년 3개 시·군, 2022년 4개 시·군, 2023년 5개 시·군이 선정돼 현재 총 13개 시·군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촌협약공모에서 경북은 7개 시·군이 신청해 모두 선정돼 사업비 3010억원(국비 2100억원, 지방비 910억원)을 확보해 전국 9개 도 중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다.

이로써 민선8기 출범 2년 동안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이루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부족한 농촌의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공급으로 도내 농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민선8기 지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대구 곳곳서 ‘일상 속 보훈’ 실천

6일 현충일 추념식 2천명 참석  
25일 엑스코 6·25 74주년 행사  
국가유공자·유족에 혜택 ‘풍성’

대구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슬로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보훈행사를 개최한다.

현충일인 6일 오전 9시 흥준표 시장을 비롯한 기관·보훈단체장 등의 국립순국선열영광 참배를 시작으로 9시

55분 앞산 충혼탑에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된다. 특히 10시부터 1분간 시 전역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려 모든 시민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게 된다.

대구시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6시까지 충혼탑 위폐실을 개방하고 참배와 추모금을 남길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한다.

또한 흥준표 시장은 대구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6·25전쟁 74주년 행사’가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6·25 참전유공자의 연령(평균 92세)을 고려해 정부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광역별 순회행사로 추진돼 임시수도로서의 대구의 상징성과 6·25 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해 대구가 첫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1급 중상이자 생계 곤란 6·25 참전유공자 등 183개 가구에 자활지원금도 지급한다.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

들도 진행된다. 지난 1일 앞산 충혼탑에서는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제23회 호국영령 추모제 및 호국사진 전시회’가 대한민국의전불군경유족회 대구시지부 주최로 개최됐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동구 망우당공원 임란호국영남충의단에서는 임진왜란 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의병정신을 기리는 ‘제14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오는 8일 오후 7시 수성못 상화동산에서는 시민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특수임무유공자회 대구시지부 주관으로 ‘제10회 달구벌 보훈문화제’가 개최되며 13일에는 제2작전사령부 내 대연병장에서 국군 희망음악회도

무공수훈자회 대구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도 마련돼 있다. 현충일을 전후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동반가족 1인 포함)은 대중교통(시내버스 제외) 및 호국사진 전시회’가 대한민국의전불군경유족회 대구시지부 주최로 개최됐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동구 망우당공원 임란호국영남충의단에서는 임진왜란 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의병정신을 기리는 ‘제14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흥준표 시장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대구가 타협과 통합의 선진대국시대를 열어 나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힘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6월 7일자 신문 쉽니다

**영양군**  
YEONGYANG-GUN

###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



# 경북도의회 교육위,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으로 지방시대 포문

조례안 67건 중 의원발의 49건 1인당 5건 등 정책 발굴 최일선 교육정책 안정성·전문성 확보 송곳 심사로 예산 효율성 높여 도정질의로 개선 등 98건 도출 정책 연구 앞장서 다분야 수상 윤승오 위원장 “모든 역량 결집 도민 체감하는 지역 변화에 힘”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열정적 입법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 제12대 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67건을 비롯해 △동의안 1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7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가 49건으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평균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해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 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주민

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조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다 른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됐다. 특히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북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여 경북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초석을 마련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제338회 임시회에서 황두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정

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 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청은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수련활동비·고등학생 수학 여행비 지원 107만812명, 졸업앨범비 지원 4만8008명으로 추계를 하고 2024년 1차 추경예산에서 18억2424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다자녀 학생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박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또한 눈여겨볼 만 한 조례다.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해

당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의 지원을 통해 학생을 마약이라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해 학생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후 교육청은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심화연수를 실시하는 등 2024년 본예산에 1억2346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교육자료 개발 △교원 역량강화 연수 △학교 방 문 컨설팅단 운영 △마약 예방 공모전

등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 예산안 핀셋 심사로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집중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시급성을 꼼꼼히 따지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으며 특히 올해 교육경 본예산의 경우 최종 196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지는 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열정적이고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총 98건(시정·처리 11건, 건의·촉구 84건, 제도개선 3건, 모범사례 2건)에 이 르는 다양한 지적 및 개선 사항을 도출 해 냈다. 이 밖에도 1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도정에 관한 정책도 활발 히 추진해 왔다. 더불어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제 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 료 지원 대책’,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통합신공항 활주 로 방향 관련’, ‘학교폭력·자살 등 심 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 등 도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 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회 또한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경 북도 지방세 연구회, 경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 등 각종 정책연구회 활 동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정책 제안 기 능을 강화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 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23 베스트 도의원상’,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제14 회 우수의정대상’ 등 각 분야에서 교육 위원회 위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윤승오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제12 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믿고 지 지해 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도민이 의회에 부 여한 사명을 잊지 않고 신뢰를 얻는 교 육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후반기에도 모 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서 △늘봄학교 안착 △유보통합 추진 △교실 혁명 실행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발 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등 중양에서 추 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협력하고 제 도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도민들이 지 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의경 기자p04140@naver.com

## “본연의 역할 최선을”… 구미시의회, 227회 정례회 본격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 돌입 관광진흥 개정안 등 15건 심의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 이정희



구미시의회가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희)를 구성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상임위

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 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 일, 1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12일부터 20일 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기관의 주 요 시책과 예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 펴볼 계획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 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 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민생 현장의 최일선 에서 체득한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사 무 감사와 결산안 심사에 반영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와 견제 그리고 개선 사항 발굴 등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 문경시, 제2회 추경 1조9억 편성 또 한번의 ‘역대 최대’ 규모 경신

문경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1조904억7000만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 회에 제출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경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총 114억7000만원 (1.06%) 증가한 규모로 이로서 문경시 예산은 또 한번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 하게 됐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재해·재난에 대비한 시민 안전 확보, 지역 현안사업 및 민선8기 공약 사업 등 필수적인 주요 사업 추진과 지 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 편성했다. 재난 및 안전 관련으로는 △하천관 리사업 14억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 리 체계 구축사업 3억원 △여름철 물놀

이 안전사고 예방 3000만원 △어린이보 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2억8000만원 등을 편성, 각종 재해 재난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 생활 안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용역 3억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9억4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시 설개선 1억2000만원 등을 반영하는 한 편 △농작물재해보험료 12억3000만원 △갑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1억 8000만원 추가·증액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 근간 산업인 농·축산 분야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활력화 를 도모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경상투데이 캠페인

# 저출산 극복

## 경북형 새날봄

<p><b>조기퇴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li> <li>근로자 임금 보전</li> <li>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li> </ul>	<p><b>학교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li> <li>거점형 돌봄센터 구축</li> <li>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li> <li>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p><b>심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 서비스</li> <li>24시 어린이집</li> <li>아픈 아이 긴급 돌봄</li> <li>24시 응급치치 편의점</li> </ul>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 매력 넘치는 '경북 관광지' 대만인 취향 저격

경북, 대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현지 주요 여행사 초청 설명회서  
단체 관광객 유치 위해 '안간힘'  
온오프라인 K-콘텐츠 홍보 '눈길'



경북도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4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Taipei Tourism Expo)에 참가해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 속의 한국(韓國里韓國)'이라는 주제로 경북의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K-콘텐츠 특색을 살린 홍보부스를 운영해 개별여행 및 한국 재방문율(73.4%, 전체 평균 54%)이 높은 대만 관광객의 발길을 경북으로 향하도록 했다.

여행사를 초청, 경북 관광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이어 갔다. 오프라인 이벤트로 박람회 개최 기간 내 부산시(부산관광공사)와의 경상권 공동 홍보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이 관광프로그램 중 경북을 선택하면 안동 하회탈, 포항 상생의 손, 경주 첨성대 등 경북을 상징하는

책갈피를 선물해 부산 입국 관광이 경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북도 중화권 SNS 채널인 경북나드리(번체)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실시해 대만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경북 관광 정보를 접하도록 했다. 대만은 경북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경북도 전담여행사와 함께 대만 현지여행사인 '콜라(可樂)투어', '연상(聯翔)여행사'를 방문해 도 대표 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대만관광협회와 대만관광시장 동향 및 경북도 방문객 모객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는 타이베이시 여행산업진흥공사 주최로 한국에서는 경북도(경북문화관광공사)를 포함한 25개의 기관이 참가해 한국 지역관광을 홍보했다.

김상철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만은 경북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대만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새로운 코스와 여행상품을 개발해 대만 관광객들이 더욱더 경북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교육청, 발명 생활 저변 확대 '최선'

구미발명교육센터 특허청장상 수상  
4연속 수상... 道 교육 우수성 입증

경북교육청은 4일 한국발명진흥회가 시행한 '2023년 우수 발명교육센터' 선정 심사에서 구미발명교육센터(담당 교사 김경호)가 전국 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돼 특허청장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전국 총 207개의 발명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 운영 실적과 발명 교육 활성화 기여도, 교원 전문성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8개의 우수센터를 선정했다.

경북교육청은 발명의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도내 총 20개의 발명교육센터와 포항, 안동, 구미 3개의 학생발명특허출원거점센터, 전국 최초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인 경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특허청장상을 배출(2020년 포항 우수센터, 2021년 구미 우수 신규 교원, 2022년 포

항 우수 신규 교원 및 구미 우수센터, 2023년 구미 우수센터)하는 등 경북발명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도내 각 발명교육센터는 정규과정과 1일 발명 교육, 찾아가는 발명 교육, 발명캠프 등 학생 대상 발명 교육활동과 지식재산교육, 교사와 학부모 대상 발명 교육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체험과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메이커교육을 위한 메이커교육관과 남부·북부메이커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인공지능(AI)교육센터와 안동·칠곡·상주·경산 수학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우수 발명교육센터 선정은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발명 교육 환경 조성과 우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력과 발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발명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문화관광공, 울릉도·독도만의 힐링 관광 콘텐츠 널리~

경북여행리포터·서포터즈 팸투어  
관광자원·문화·해양자연환경 취재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울릉 힐링 관광 콘텐츠 홍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팸투어를 진행했다.

울릉군 힐링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이번 팸투어에는 경북여행리포터와 경북여행서포터즈 등 17명이 참여했다.

경북여행리포터단은 지난달 30일 포항에서 대형크루즈를 타고 31일 울릉도에 도착해 독도행 쾌속선에 올랐다.

이후 30분 동안 체류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해양자연환경을 취재했다.

또 울릉도에서 3일간 머무르며 촛대바위와 행남해안산책로, 나리분지, 태하향목전망대, 우산국박물관, 울릉자생식물원 등 울릉도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울릉도만의 독특한 문화 등을 취재했다.

김남일 사장은 "울릉도를 필두로 올해 동해안-백두대간-낙동강에 이르는 인문산수 자원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가는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잘 알려지지 않은 경북

빌리지투어 발굴과 관광 자원화를 통해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경북으로 끌어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경북나드리리포터단과 경

북여행서포터즈의 생생한 울릉도-독도 팸투어 취재글은 경북나드리 블로그(<https://blog.naver.com/gbnad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교육청, 139학교 5개 학원 대상  
내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경북교육청이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도내 학교 139교와 5개 학원에서 실시됐다. 도내 재학생 1만6428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822명 등 총 1만7250명이 응시(전년 대비 390명 감소-재학생 320명·졸업생과 검정고시 70명 감소)한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수능 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보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시험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은 문·이과 통합형을 기본으로 올해 수능과 같은 체제로 시행됐으며 영어와 한국어,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은 절대평가로 치러졌다. 수험생들은 오는 7월 2일부터 개인별 성적 통지표를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내 모든 수험생이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태국 식품전서 '경북 수산물 우수성' 알렸다

도 수산 식품기업 6개 사 참여  
상당 217건 1343만달러 성과

경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수산 식품기업 6개 사와 '2024년 태국(방콕)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경북 수산물의 우수성과 동반자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태국(방콕) 식품전시회는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로 아세안 최대 B2B 식품전시회다. 서울식품전, 동경식품전과 더불어 아시아 3대 식품전으로 불리기도 하며 한-아세안 FTA 등으로 6억명 인구의 아세안 단일시장으로 향하는 판문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회에 도는 6개 사가 공동으로 경북 수산 공동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참관인을 대상으로 경북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식회, 특판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전문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매칭도 진행해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수출상담회에서 진행된 상담 건수는 217건 1270만달러이며 계약 금액 73만달러(한화 약 9억원)와 현장판매액은 5000만원에 이른다. 향후 도와 참가기업은 상담 건수를 자세히 분석·검토해 추가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도내 수산물 수출을 위해 지난해 9월 블루푸드 수출대전환 종합계획 발표 이후 올해 3월에는 수산 식품기업 청년 및 2세대 가업기업 30여명을 주축으로 (사)경북수산식품수출기업협회 설립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경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KOTRA, aT 등 수출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 경북 수산물에 K-블루푸드의 선두주자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대구시,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불복 항소... 시민단체 “철회하라”

법원 “市 축제 방해 부분 인정... 700만원 배상해야”  
**洪 시장 “독단적 판결, 합의부서 판단 다시 받을 것”**  
 참여연대 “더 이상 오만 부리지 말고 평화 축제 보장”

지난해 퀴어축제 진행을 막아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대구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시민단체가 “오만을 부린다”며 규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퀴어축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일 대구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제2민사

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구시가 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시장은 같은 달 29일 올라

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 꿈’에서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서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낸 성명에서 “올해 퀴어문화축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올해도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오만을 부리지 말고 항소 의사를 철회해 평화적 축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은 5일 회의

를 열어 대구시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15회 대구 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 사용 적법성 여부를 놓고 행사 주최 측과 대구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에 주최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한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



## 경북 기동순찰대,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 역할 ‘톡톡’

출범 100일, 지역적 특성 등 반영  
 서부권 8개팀·동부권 5개팀 운영  
 형사범 165건 검거 등 범죄예방  
 각종 행사·축제장에서도 ‘활약’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서현역 흥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조직 재편을 단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출범했다.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또한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 기동순찰대는 지역적 특성과 권역별 범죄발생 등을 반영해 서부권(구미) 8개팀(56명)과 동부권(포항남부) 5개팀(3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일 경북청에 따르면 기동순찰

대는 현재까지 중요 수배자 345건, 형사범 165건 검거, 기초질서위반행위 1055건 단속 등의 실질적 범죄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도보 순찰이라는 특성을 살려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등 주민친화적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각종 행사·축제 장소에도 모습을 드러내 가시적 예방효과를 높이는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설조직의 활동 노력을

통해 같은 기간 112총동신고가 4.3%, 5대범죄가 10.7% 감소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현장의 치안부담도 일부 완화되었다.  
 최근에는 상주에서 농산물 절도 예방순찰 중 마을 주택 네 뒷밭에서 다량의 양귀비(523주)를 발견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4월 포항에서 몸에 신나를 뿌린 채 라이터를 들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무전으로 듣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 주민 접근을 통제해 뒤 지속적인 설득으로 라이

터를 빠르게 회수하고 응급인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구미 진평동 일대 원룸 밀집단지 순찰 중 다건의 수배 차량을 발견해 3일간의 잠복을 통해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우선 생각하며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드론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경북도, ASF 검출 양돈농가 주변  
 멧돼지 기피제 살포해 ‘철저 방어’

경북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강원 접경지역 및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시군 소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멧돼지 기피제 방역을 했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영덕(1월 15일), 경기 파주(1월 18일) 및 최근 강원 철원(5월 21일) 양돈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지역 야생 멧돼지에서도 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국내 양돈농가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강원도에 접경해 있는 영주, 봉화, 울진을 시작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이력이 있는 시군의 양돈농가 주변에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해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지난 4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국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고정형 멧돼지 기피제 3060포(88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도는 분무형 기피제 살포가 기존 고정형 기피제와 더불어 야생 멧돼지 차단에 이중의 방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대구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능력 강화

대구시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일 9개 구·군(위생·감염부서) 및 군위교육지원청, 북구노인복지

관(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4년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식중독 발생 시 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본 훈련은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및 직원들이 급식을 섭취하고 난 후 식

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며, 식중독 발생 신고를 시작으로 식중독 발생 접수·보고→원인·역학조사 회의 진행→발생 장소 현장 조사→현장 조치→검체 채취 및 의뢰로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훈련에 임해 현장감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환경·인체 검체

채취 요령과 원인 역학조사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노관용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계기관 간의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운영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현충시설 ‘애국지사 함당 정진화 선생 지비’ 예천 풍양면 생가로 이전... 상시 관리 용이

경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용수)은 현충시설인 ‘애국지사 함당 정진화 선생 지비’가 지난달 18일 선생의 생가(예천군 풍양면 우망리)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족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서 이전비를 지원했다고 한다.  
 함당(涵堂) 정진화(鄭鎭華) 선생은 예천 출신으로 지난 1913년 채기중, 유창순 등과 함께 대한광복단을 조직해 친일 부호 처단과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다 1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선생은 출옥 후에도 항일 투쟁을 지속하다가 지난 1945년 별세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유족회는 “도로변에 위치한 공적비



를 선생의 생가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상시적인 관리도 더욱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 경주 충효국민체육센터 설계 당선작 ‘눈길’

한들종합·동우에이스 공동 응모  
올해 실시설계 완료, 2026년 개관  
연면적 3500㎡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헬스장·XR룸 등 갖춰



경주시가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 4일 공개했다.

충효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9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 3월 설계공모 공고를 낸 가운데 5월 23일까지 총 10건의 설계 작품이 접수됐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는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기술계획 등을 주요점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 한들종합건축사사무

소(서울)와 ㈜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대구) 공동 응모 건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점을 입상작으로 각각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건물의 배치와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동선계획이 우수하며 구조

적인 합리성과 경제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작품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심사했으며 심사과정은 시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충효국민체육센터는 134억원의 사업

비를 들여 연면적 35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여기에 수영장(25m×6레인), 생존수영풀, 영유아풀, 헬스장, 탁구장, GX룸 등이 들어선다.

시는 그간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문화재 표본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6월 준공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시설 수영장의 폐쇄로 스포츠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내권 일부, 선동동, 서부권역 주민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기능과 경관을 모두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만들겠다”며 “인접 부지에 건립 예정인 만다비체육센터도 조속히 추진해 한 장소에서 여러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주한 페루대사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지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강연 나서  
페루 매력 어필·60년 우정 강조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대사가 4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6월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했다.

4명의 한국 인플루언서가 만든 ‘나의 페루 이야기’라는 짧은 영상을 시작으로 시작된 주한페루대사의 초청 강연은 페루를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파울 두클로스 대사는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지난 63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경제·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파울 두클로스 대사는 “많은 한국인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어 접하기 쉽지 않은 페루에 대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올해와 오는 2025년 APEC 의장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동궁원, 블루베리 열매따기 체험 오세요~

화차별 선착순 15팀 내외 현장 접수  
체험비 50% 할인 이벤트도 진행

경주동궁원은 6일부터 블루베리 열매따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시간은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3시 30분이며 하루 7회 30분 간격으로 열매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체험비용은 1인당 6000원이며 200g 케이스와 15분의 체험시간이 주어진다. 체험 신청은 3관(당굴식물정원 & 곤충생태전시관)에서 매 화차별 선착순 15팀 내외의 현장 접수받는다.

열매따기 체험 후 무게를 측정해 정확히 200g일 경우 체험비를 50% 할인해 주는 ‘신의 손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현재 동궁원에서는 230㎡ 규모의 블루베리나무 시험포가 있으며 블루베리 품종 중 듀크, 오닐, 뉴하노버, 스타 등의 나무를 10여주 육성 중이다.



특히 올해는 체험장 리뉴얼로 체험 환경이 개선되고 블루베리 수종도 교체돼 더욱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장원 원장은 “해마다 인기를 더해가는 블루베리 열매따기 체험을 통해 여름의 시작을 상큼한 블루베리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자매도시 경주시-中 츠저우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모색

주하오동 당서기 필두 대표단 내방  
문화·관광·경제산업 분야 등 논의

경주시는 중국 자매도시인 안후이성 츠저우시 대표단과 양 도시 간 문화, 관광, 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하오동(朱浩東) 중국 츠저우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3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했다.

츠저우시는 중국 안후이(安徽)성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창장(長江, 양쯔강) 남안의 강변 항구도시로 중국의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다.

경주와 츠저우의 인연은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성덕왕의 첫째 아들로 당나라에 건너가 불교에 귀의한 승려 김교각이 1300여년 전 설법을 펼쳤다는 곳이 츠저우다.

경주시와 츠저우시는 이런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온라인 교류를 이어오다 2023년 9월 경주시 대표단의 츠저우 방문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주하오동 당서기의 이번 경주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는 교류 강화를 위

한 새로운 걸음을 시작했다.

주하오동 츠저우시 당서기는 “경주시와 츠저우시 간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 도시가 문화, 관광, 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낙영 시장은 “경주와 츠저우는 한중 우호교류의 상징인 김교각 스님의 인연으로 우정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양 도시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경주Wee센터, 반짝반짝 빛나는 널 응원해!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경주교육지원청Wee센터는 3일과 4일 이틀간 경주 황남동 일원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위(Wee)섬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위(Wee)섬표 프로그램은 ‘섬’을 통해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학교를 벗어나 환기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지역 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담당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급속공방으로 직접 찾아가 ‘은공예가’ 직업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은공예가 직업 소개, 은관 세공 작업, 은이 가지는 성질 등을 배우며 수작업을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은반지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목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길 바란다. 나아가 확고한 진로 목표 설정이 학교생활의 연결고리가 돼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경주로ON’ 가입하면 사적지 4곳 무료입장 혜택 ‘팡팡’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

경주시는 6월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지역 사적지 4곳에 대해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통합관광

모바일 앱인 ‘경주로ON’ 회원가입이 확인되면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오릉, 포석정에 무료 방문이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특히 현충일 연휴기간을 맞아 6월부터 오는 9일까지 황룡사역사문화관 무

료입장 이벤트도 선보인다.

황룡사역사문화관 무료입장 이벤트도 사적지와 동일하게 ‘경주로ON’ 앱에 회원 가입하면 된다.

시는 향후 경주로ON 회원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추

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관광컨벤션과장은 “한국관광공사의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한 스마트관광도시 홍보를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경주 방문객들은 이벤트 기간 내 반드시 무료입장 혜택을 누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수산특화! 참바다맛! 경주바다**

경주농수산물공동브랜드 **경주이사금** ESAGEUM 경주이사금



# 대구 '청소년 마약 중독 위험성' 널리 알린다

학생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초중고 대상 1500회 9만명 목표  
범죄예방 수칙·거절법 등 지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형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청소년들은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특히 4일 효성초등학교에서 18개 학급 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함께 한 걸음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학생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

실시한다. 특히 4일 효성초등학교에서 18개 학급 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함께 한 걸음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학생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

실시한다. 특히 4일 효성초등학교에서 18개 학급 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함께 한 걸음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학생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

보고 중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과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약물 퀴즈를 통해 약물의 종류와 중독의 위험성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반별 활동과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을 나누고 마지막 순서로 실천을 위한 다짐과 선서 시간을 통해 마약류 범죄예방 수칙과 거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향이 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약류에 대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정보 전달식의 강의보다는 실제 대처 방법과 거절법에 대한 상황극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달성군 "외로운 죽음 없도록"

2024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위험군 발굴·지원 안전망 구축해

달성군은 최근 1인 가구와 중장년 및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의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24년 달성군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2024년 달성군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까지 총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해 더 신속하게, 더 넓게, 더 꼼꼼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2023년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실적 △2024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추진 방안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추진 △고독사 예방 '달성안심서비스업' 무료 배포 △24시간 AI돌봄 지원사

업 △공공적응 및 긴급지원 연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무연고자 단독가구 간병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심서서비스 등에 대해 부서 간 협력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달성군은 현재 복지대상자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행복나눔 안부 묻기' 사업,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전달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건강검료지원사업', '온기한끼(반찬 지원)사업', '행복나눔기! 추억더누기!(생일지원사업)'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및 후원업체와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충찬기자gst3000@naver.com



## "공직자·군민과 대구 군부대 군위 이전 반드시 성공" 자신

군, 전방위 지원 약속 퍼포먼스  
700명 직원 참석, 강력 의지 천명

군위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정례조회에서 김진열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군부대 이전에 대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시행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군위군 공직자는 군인 가족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직자들의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가운데 두고 부서별 유치 메시지를 담은 패널을 소속 직원들이 직접 들고 김진열 군수의 선창에 맞춰 "대구 군부대 이전은 군위로! 군위로! 군위로!"를

함차게 외침으로써 군위군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포먼스에 앞서 김승현 정책추진단 투자프로젝트팀장으로부터 군부대 이전사업 개요, 후보 후보지 소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5개 이전 후보지 자체 중 이전후보지(우보)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지지 선언을 한 유일한 지자체, 동일한 광역지자체 내 이전으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이미 군부대 이전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군위군의 강점을 부각시켜 함께 공유했다. 또한 군인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서 소관 업무별로 군인가족 지원정책 발

굴에도 많은 고민과 협조를 해줄 것으로 협조 부탁했다.

발표가 끝난 후 김진열 군수는 "군인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라며 민선8기 아이조아센터, 아이사랑키움터,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등 이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앞으로 3년 안에 반드시 그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전 부서에서는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는 올해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공직자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김진열 군수의 평소 신념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한 김진열 군수는 "군민들과 민간단체에서 그동안 각종 행사 등에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도 군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군부대 이전 TF팀을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모아 사전 준비와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오늘 이 퍼포먼스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고 국방부와 대구시에서 오는 연방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군민들과 함께 대구 군부대 군위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 3호선 수성시장역, 비둘기 배설물 차단!

승강장 천장 비둘기 차단망 설치  
피해 큰 지상 역사 추가 설치 예정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경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았던 수성시장역의 천장 전체를 그물망으로 덮었다.

비둘기 차단망이 설치되기 전 수성시장역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과 청소를 하는 직원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공사는 그동안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드스피크, 음향 퇴치기, 조류 기피제, 독수리 모형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시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공사는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승강장 천장 전체를 그물망으로 덮어 비둘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수성시장역은 비둘기 차단망의 효과를 특

특히 보고 있다. 더 이상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나 민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이나 부산 등 타 도시에서도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나 민원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결을 위해 황조롱이 모형까지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사의 비둘기 차단망 설치하는 비둘기로부터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공사에서는 올해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상 역사 한두 곳을 선정해 비둘기 차단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기혁 사장은 "공사는 시민들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더욱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봉화군, 경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

납세자 편의시책 등서 높은 평가  
상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노력

봉화군이 경북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을 지표로 2023년도 세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 납부

을 향상,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그동안 상시적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납기 도래 지방세 안내 문자서비스, 성실납세자 지원 등 공정과세 실현과 군민 납세 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현국 군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군민들과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청송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큰 호응'

청송군은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읍·면 마을별 집중 예방접종 기간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목표 인원 5000명 중 보건기관 3750명과 위탁의료기관 1070명 포함해 총 4820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1959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군민으로 기존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특정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는 회복 6

~12개월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에 적정량의 백신배정과 예방접종홍보를 통해 집중 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노년기에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이 건강할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54-870-7230, 7222)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 '영주 여행영상 공모전' 수상작 20편 선정

영주시가 지난 3일 '2024 영주 여행 영상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주시 방문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지역 내 관광지, 식당, 카페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15초 이내 영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광지 표현, 활용성, 작품 완성도, 희소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

해 관광지 부문 대상에 '영주호'를 배경으로 촬영된 '하늘과 물이 어울려 노는 곳', 맛집 및 카페 부문에서는 '5월이 꽃이 핀다, 온실 카페 May Bloom'을 선정했다. 또한 부문별 우수상 3편 및 장려상 6편이 추가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여행버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성 기자bk01410@naver.com

# 문경, 세계 패러글라이딩 중심지로 비상한다

'제2회 FAI 아세안-오세아닉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 대회' 문경활공장 일대 16일까지 개최 문경여고생 기수로 개막 알려 9개국 선수·관계자 150명 참여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단산 문경활공장(문경을 고요리 소재) 일대에서 9개국 150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2회 FAI 아세안-오세아닉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다. 문경은 지난 2022년 13년 만에 PWC 아시아 투어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테스트 이벤트 및 아시아 투어, 올해 2월 말 '국제항공연맹 패러글라이딩 분과위원회(FAI CIVL) 세계 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패러글라이딩 중심지로 이름을 굳혔다. 국제항공연맹(FAI)과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KPGA)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에 열린 테스트 이벤트 대회가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아시아-오세

아니아를 대표하는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대회로 열리며 나라별 대표선수들이 출전해 메달 경쟁을 펼친다. 문경새재 야외공원에서 열리는 6일 개막식에는 문경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수로 나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선수들과 문경새재길을 따라 내려오는 퍼레이드를 펼치고 이어지는 식후 공연에서는 퓨전국악팀 필소굿(必 So Good)이 무대를 꾸며 한국 전통 소리로 신명나는 한국의 맛을 알린다. 또 당일 야외공연장에서는 △비행기 날리기 △페이스페인팅 △VR을 통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인생 네컷 포토 체험이 준비돼 현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진석 협회장은 "많은 시민에게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스포츠의 매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번 개최식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지난해 사전 대회를 통해 철저히 준비했으니 이번 대회도 단

산활공장의 우수한 활공 조건을 활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대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신현국 시장은 "계속되는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단산의 문경활공장이 명실상부한 세계 패러글라이딩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문경 단산의 절경 위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최고의 경기를 펼칠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의성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한 선택과 집중"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발굴 보고회 서울대, 군 미래인구뎀 설계 용역

의성군은 지난달 31일 주기별 저출생 위기대응 계획 방향 수립 및 정책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의성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41명으로 전국(0.72명)과 경북도(0.86명)를 크게 상회했지만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

과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군은 이러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저출생 위기 대응 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적용가능한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했다. 이번 용역은 신영미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소센터 박사가 책임 연구를 맡아 3개월간 과업을 수행하며 인구변화에 따른 군 미래인구를 예측하고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의성군 미래인구뎀 설계 용역'을 이미 서울대와 함

께 진행해 전문성을 검증한 바 있다. 서울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현황과 향후 인구 변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년) 저출생 대응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군이 수행 중인 정책들을 점검,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 △비혼 출산 지원 등 특례 지정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일자리 확대 △주거 및 빈집 활용 방안 △신생아 특례 발굴 △적극적인 다

자녀 정책 발굴 △공공육아 등 저출생 대응 중점 검토 과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주수 군수는 "미래 인구뎀 설계를 통해 인구분석, 정책 수요 등 검증된 데이터를 얻게 됐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성군만의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명사초청 '영양 별빛 아카데미'... 군민 건강 증진 기대

마인드카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스트레스의 영향·극복방법 강연 12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

영양군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양재진 원장을 초청해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양 별빛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해 영양군이 마련한 영양 별빛 아카데미 6월 강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이사 양재진 원장을 초청해 '스트레스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극복방법에 대해 배우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이 예정된 양재진 원장은 마인

드카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협의회 홍보이사로서 활동 중에 있으며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최근에는 MBN '동치미', tvN '어쩌다 어른'을 비롯한 다양한 TV프로그램과 유튜브 '양브로의 정신세계'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이어

가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군민들께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양 별빛 아카데미는 무료 강연이며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054-680-6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까지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작전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법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 구미 소상공인 기 살리는 종합거점 '문 활짝'

시, 소상공인종합센터 출범식  
구미상의 위탁 임차료 무상 운영  
경영 안정화·종합컨설팅 등 제공  
시-관계 기관 8개소와 업무협약  
다양한 지원 사업·혜택 '집중'

구미시가 도내 최초로 구미소상공인 종합센터를 출범했다. 개소식은 4일 구미상공회의소 4층에서 김장호 시장, 윤재호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 김장호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의 하나다.

구미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을 설립했다.

센터를 운영할 민간 위탁기관으로 구미상공회의소가 선정돼 구미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을 두며 상공회의소는 센터 인테리어와 임차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여러 관계 기관의 흠어진 사업정보를 총망라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즉각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법률, 노무, 세

무·회계 무료 상담 등 종합컨설팅을 사업장 별로 최대 2회 지원한다.

또한 이날 구미시는 소상공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구미시를 포함해 총 8개 기관으로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경진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다양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

증재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 단위 지원기관 본부가 구미에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은 쉽게 원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는 △유망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경영 필수 교육 △디지털마케팅 교육을 진행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 “보훈은 365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호국 칠곡’서 이색 챌린지 스타트

대구보훈청 마련 보훈챌린지  
수어 인종샷 SNS에 해시태그  
나라사랑 정신 일상 공감 형성

“오늘부터 365일 현충일이고 우리 집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 시설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이색 챌린지’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전사 장교 출신으로 칠곡군 홍보대사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에서 마스터를 맡고 있는 최영재씨는 4일 ‘집에서 감사’ 챌린지를 시작했다.

집에서 감사 챌린지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기가 아닌 일상의 삶의 공간인 집에서 365일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을 위한 값진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구지방보훈청이 마련했다. 보훈청은 챌린지 동참을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보훈이 행사가 아닌 일상의 문화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챌린지는 우선 감사와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본인에 이어 릴레이를 참여할 사람 3명을 지명한다. 이어 #집에서감사챌린지 #일상의보훈 #365일현충일을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개인 SNS에 올리면 된다.

최영재씨는 개인 SNS를 통해 “제복 입은 군인의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이 현충 시설을 넘어 국민의 일상 공간에서도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챌린지 동참자로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트로트 가수 박근과 금수미 칠곡군 생활개선연합회 감사를 지목했다.

박현숙 보훈청장은 “이번 챌린지 통해 보훈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분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욱 군수는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칠곡군을 찾아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선진 보훈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 김천지역 도서관 2곳, 문체부 공모사업 3개 선정 ‘쾌거’

시립도서관 본관·울곡도서관  
인문 분야 향유 기회 폭 넓혀

김천시립도서관(본관)과 울곡도서관에서는 올해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4년 인문학 공모사업에 3건의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시립도서관(본관)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2건이며 울곡도서관에는 ‘지혜학교’ 1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주민들이 인문학에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 탐방과 체험을 결합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10차시에 걸쳐 시립도서관(본관)에서 운영되며 ‘공간의 인문학·땅에서 하늘까지’를 주제로 도시 건축과 천문학에 대한 강의와 현장 탐방이 진행된다.

그리고 ‘지혜학교’는 주민 생활 가까이 있는 문화기반시설에서 철학, 문



학, 역사 등 인문 분야의 지식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시립도서관(본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은 오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2주간 ‘서양 역사와 고전에 배우는 삶의 지혜-유토피아, 이상 세계를 통해 현실을 비판한다’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울곡도서관에서는 7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12주간 ‘이미지 시대의

사유와 삶의 지혜-우화와 영화로의 산책’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상기 인문학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시민(성인)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은 김천시립도서관 누리집(www.gcl.g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립도서관 운영팀(054-437-7801)과 울곡도서관팀(054-421-02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영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인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는 힘을 키우고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성주별고을장학회, 저출생 극복대응 ‘힘’

초등 사교육비 지원사업 논의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는 지난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시행될 신규사업인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성주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원계획은 해마다 기부되는 별고를 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원비 지원으로 △성주군에 주소 둔 지역 내 초등학생 전체(1-6학년) 대상 △학교 방학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월 1회 10만원씩 4개월(연 40만원)한도로 △수강과목 관계없이 1과목에 대해 학원비(인터넷수강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내용

은 이달 중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장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홍보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성주군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권태원 운영위 회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성주군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회에서도 각 방면의 협조를 통해 범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병환 이사장은 “현재 해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도 위기에 봉착된 상황”이라며 “경북도와 성주군은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 치아 건강 절대 사수

상주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치의협·경북대·공중보건의 동참  
취약층·주민 대상 구강교육 진행

상주시보건소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일, 4일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회관 전경, 경북대학교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은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한자 ‘구’를 의미해 지정됐다.

이번 구강 보건의 날 행사는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구강관리가 어려운 지역 내 취약계층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주시치과 의사회, 경북대학교 치위생학과, 보건소 치과공중보건의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구강진진에 기여한 자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구강검진, 불소도포), 체험존(치아모양 쇄고방향제 만들기), 포토존,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송복실 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구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구강보건 실천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상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구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하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2@naver.com

**조방낙지**  
대표 손 일 희

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

**(주)강산투어**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

**공간종합주방**  
대표 양 주 석

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



# 영농철 애타는 농심... 청도, 일손보태기 나서

고령자 등 취약농가 우선 지원  
김하수 군수, 농가 직접 방문해  
애로 청취 등 어려움 함께 나눠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 참여 당부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본격적인 수확을 맞은 양파, 노지 산딸기, 포도농가 등을 방문해 일손돕기 참여자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일손부족으로 애타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청도군은 지난날 2일 농촌일손돕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한다.

참여자는 군청직원, 경찰, 유관기관,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다.

농촌 돕기 우선 지원대상은 고령자, 장애농가, 기초생활보호대상, 유공자 등 취약농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손돕기 참여자에 대해 청도군은 중식, 간식, 작업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일손돕기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국제로타리3700지구와 업무협약 등을 추진했으며 235농가에 대해 3177명이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또한 올해에도 자매결연도시, 타 기관 및 단체에 농촌일손돕기 협조를 요청하고 일손돕기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풍각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한 기업체는 13년째 연간 2회 700여 명이 농촌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청도군의 5-6월은 다양한 농작업이 함께 이뤄지는 복합영농으로 농가들의 일손이 부족하고 힘든 시기에 김하수 군수는 농가를 방문해 격려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일손 지원을 받은 문문면 오진리 김모씨는 “고령화 및 이농 현상으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청도군청 직원 및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대규모 농촌인력 필요 농가에 대해 △산서 지역은 청도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산동 지역은 동청도농협 농촌인력증가센터로 연결해 농가의 인력 구인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고 있으며 일손돕기 희망 농가는 농

지소재지 읍·면·동 및 농촌일손돕기 지원장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군수는 “영농철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여러 기관·단체 및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자원봉사가 범군민적으로 확산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기관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김광열 영덕군수, 관광 활성화 '현장소통'

괴시마을에서 상대산 정상까지  
플로깅·맨발걷기하며 의견 공유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영해면 상대산에 있는 관어대에 올라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김 군수와 함께한 단체는 해안 트레킹 코스인 블루로드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는 '가자, 블루로드'로 이번 행사는 자연과 문화를 자원으로 웰니스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영덕군이 기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군수와 단체 회원들은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괴시마을에서 출발해 상대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을 펼쳤으며 김 군수는 황토길 구간을 맨발로 걷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관어대 코스를 점검하며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관어대 정자에서 이뤄진 분행사에서 '영덕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김 군수와 단체 회원들은 영덕대개 이외의

관광 콘텐츠 다변화에 뜻을 같이하고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상 상대산 관어대를 블루로드와 연계해 웰니스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자 블루로드' 회원들은 블루로드 코스에서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설치, 블루로드 구간별 자전거 대여, 교통편 개선, 블루로드 관광해설사 지원 등 블루로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이에 김광열 군수는 “블루로드 코스에 대중교통 배차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이 직접 제감으로 얻은 소중한 아이디어를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했다.

이어 김 군수는 “영덕군은 5경을 한번에 조망할 수 있는 상대산 관어대와 최고의 해안 트레킹 코스인 블루로드 등 웰니스관광에 최적화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 최고의 웰니스관광지로 발돋움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 울진 맑은물사업소, 주기적 수질검사로 주민 건강 지킨다

지방·마을상수도 철저히 검사  
먹는 물 수질기준 모든 항목 '적합'  
수돗물 품질보고서 이달 중 발간

울진군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공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법정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원수는 매월 8개 항목, 반기별로 3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검사 결과 수질은 '1a(매우

좋음)'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상수도 정수는 매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을 포함한 7개 항목, 매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불소 등을 포함한 5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먹는 물 수질기준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검사 결과는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또한 원수의 경우 카드뮴, 수은, 불소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수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을 포함한 13개 항목에 대해 분기별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울진군 맑은물사업소는 수돗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2023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이달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상식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병복 군수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길 바라며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삼주 기자ksj09102@naver.com

# 경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경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

익사 사고(질병 제외)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상해사망장제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애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16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애,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경산시는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SNS,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현일 시장은 “재난·재해 예방 시책을 꼼꼼히 살펴 추진하고 더욱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 '화합의 장'

市 발전 기여자에 시민상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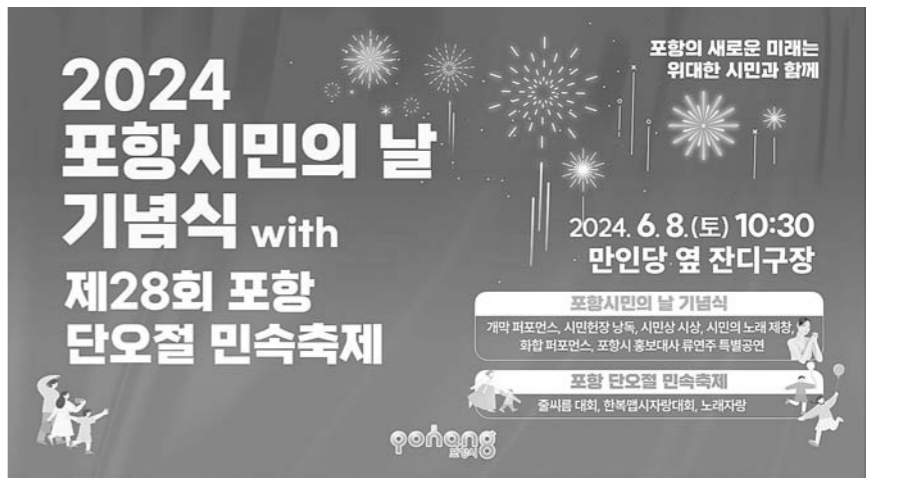
포항시는 오는 8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시승격 75주년을 맞아 '2024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과 '제28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를 동시 개최해 대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1부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2부 제28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은 각 읍·면·동별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시민상 시상 △홍보대사 류연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며 '포항의 새로운 미래는 위대한 시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걸고 포항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2부 행사 제28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에서는 △출 씨름대회 △한복 댄스자랑대회 △노래자랑대회 등이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단오부채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공헌한 한동선 세명기독병원장, 김선식 포항제철소 차장에게 이날 행사 중 이강덕 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포항시 시민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현태 기자cyt4568@naver.com



**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

**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  
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

**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  
☎ 010-3953-7576





### 무한 친절로 관광객 얼굴에 웃음꽃 피워

문경, 친절음식점 4개소·친절공중위생업소 5개소 선정

문경시는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Yes문경 친절음식점' 4개소, "Yes문경 친절공중위생업소" 5개소를 선정했다.

위생업소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절 우수업소 선정은 식품 및 공중위생단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고객맞이, 응대서비스, 고객 편의시설, 위생관리 수준 등 각 업종별 친절평가 항목에 따라 현지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친절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문경약돌한우정육식당(대표 안선화) △산동네창국장(대표 노진국) △토박이식당(대표 이명희) △카페오네(대표 황지은)로 친절도 및 위생청결도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시장 표

창 및 친절음식점 지정 현판을 수여했다.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 부문 △히어로즈키즈헤어(대표 조성희) △관해어(대표 배분란), 이용업 부문 △귀빈이웅소(대표 민순기), 숙박업소 부문 △K2모텔(대표 김진호) △동화장여관(대표 김명자)으로 친절도와 영업환경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표창패를 수여했다.

신현국 시장은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는 문경의 얼굴과 같다"라며 "영업주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서 '무한친절! 세계1등!' 친절도시 문경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영천, 과학기술장비 활용 집중안전점검 '총력'

한국 안전대전환 홍보 캠페인  
민관 관계자 30명 한마음 한뜻  
최기문 시장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한 영천 만들기 최선 다해"

영천시는 지난 3일 신망정사거리에서 6월 안전점검의 날을 기념해 안전캠페인 및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안전지킴이 봉사단, 안전보안관, 공무원 등 30여명이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안전한바퀴 운동과 연계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안전신문고 이용,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의 홍보를 함께 실시했다.

이번 6월 캠페인은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61일간 지역 내 안전 취약시설 94개소에 대해 안전위험요소를 점검·발



굴토록 홍보했다.

최기문 시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우리 영천시의 위험 요소를 점검해 안전한 영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영천시는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반

을 구성해 드론·균열탐지기·열화상카메라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해 집중안전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식열 기자jisy9220@hanmail.net

### 고령, 맞춤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고령군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신체·언어·위기 대처능력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안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안전취약계층 시설에서 희망하는 장소 및 일정에 맞춰 안전 교육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지난 3일 성산어린이집의 아동을 대상으

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신청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신청을 받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은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군민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군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령군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적극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일호 기자hoyat1515@daum.net

### 내실 다지는 예천4-H회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4일 효자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예천군 4-H회원 간 화합과 단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H 연합회·본부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대상 특강 △목재를 이용해 도마와 다도창상을 만드는 목공체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으

로 구성됐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인구보전복지협회(강사 황광자)의 특강은 청년농업인들의 저출산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황보록 회장은 "본부 회원들과 연합회 회원들이 함께해 예천군 4-H회의 단합과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정정호 소장은 "지난 날 우리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킨 데 4-H 힘이 컸다. 앞으로도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영호남 교육 '맞손' ... 봉화교육청, 미래교육 시드볼트 찾는다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 초·중·고등학교교장 등 30명 참석  
권혜자·정순미 교육장 교류 약속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31일 이틀간 전남도 순천 및 여수 일원에서 초·중·고등학교교장 및 교육지원청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영호남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의 시드볼트를 찾는 주제로 진행됐다.

더불어 순천만습지의 생태체험선 체험과 장흥교육지원청 교육가족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삶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여수에서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여

해 경북도교육관을 비롯한 16개 시도 및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워크숍 자리에서 권혜자 봉화교육장과 정순미 장흥교육장은 우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규모가 비슷한 학교급별로 학생 중심의 교육 교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권혜자 봉화교육장은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공생교육·공존교육·공동체교육"이라며 "앞으로 영호남 교류의 범위를 넓혀 원격화상수업 등 지역적 한계를 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학교 중심의 활발한 지역 간 교류 활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영덕보건소, 저출생 극복 위한 상반기 임산부 건강교실

20명 대상으로 화상교육 진행  
모유수유·건강 관리법 등 안내

영덕군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올바른 육아 준비를 바탕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주에 걸쳐 '2024년 상반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체 변화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요청을 반영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이뤄졌으며 △모유 수유의 장점과 올바른 수유 방법 △임산부 요가 △태교용품 만들기

△신생아 목욕 및 기본 건강관리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공재용 건강증진과장은 "사회적으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공부문이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 함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 임

신·출산·육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첫 만남 이용권 △육아용품 대여 △첫달 및 초등 입학 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 더블에이치플랜

## DHP

###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 적금 금리가 연 20%?... 대구은행 'DGB함께예금' 조기 소진 임박

**i뱅크 Re-Born Festival 성황  
6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고금리 예적. 환율 우대 '큰 호응'  
모바일 앱 회원 2백만 돌파 달성**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실시한 대고객 감사제 'i뱅크 Re-Born Festival'이 순항 중인 가운데 감사의 의미로 진행한 1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금이 조기 판매에 임박했다고 밝혔다.

'i뱅크 Re-Born Festival'은 예금, 외환, 대출, 펀드, 카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구성한 고객 참여형 축제로 오는 8월 말까지 10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시작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DGB함께예금'을 판매해 왔다.

국내 7번째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고객들에 대한 환영(Welcome)과 기존 고객들에 대한 감사(Thanks)의 표시를 위해 역대급 혜택을 제공하는 본 이벤트에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DGB함께예금은 판매 이후 약 12일의 기간이 경과한 가운데 1조원 한도의 조기 판매를 앞두고 있다.

개인 1인당 가입 한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DGB함께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기본 연 3.70%~최고 연 4.15%의 금리가 적용된다.

판매를 시작한 이후 당초 예상한 판매 종료일이 오는 16일보다 시기가 앞당겨져 판매 후 16일 만인 이달 4일 총 한도 1조원의 조기 소진이 예측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DGB함께예금 가입 시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을 기념해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60명에게 순금 1톤의 기념 골드바

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 이목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i뱅크 Re-Born Festival' 이벤트 기간 중 DGB대구은행의 모바일 앱 i뱅크 회원수 또한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 판매되는 최고 연 20%의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소액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5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32만좌에 한해 판매될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은 6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기본 연 4%에서 최고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

리 연 4%에 납입 조건에 따라 최고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매일 납입 시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매회 추가되는 데일리 우대금리(최고 연 6%)와 플러스 우대금리(최고 연 10%)가 적용되는 '편 세이빙 적금' 형태다.

개인당 1인 1회좌 가입 가능하며 최초 신규금액은 0원(신규 당일부터 입금 가능)으로 납입가능금액은 한 번에 1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1일 1회 납입 가능)로 총 60회까지 납입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금리로 2개월 만에 최대 5만원 정도의 세전수익을 낼 수 있는 적금 상품인 만큼 출시일 많은 고객이 i뱅크 앱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i뱅크 앱가입과 대구은행 입출금계좌가 없는 고객들은 연계계좌를 미리 개설해 둘 것을 추천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57년간 DGB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의 관심으로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시작을 하게 됐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벤트에 보다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하면서 "100일간 진행되는 'i뱅크 Re-Born Festival'을 통해 더욱 다양한 고객을 만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o@daum.net

## 포항, 국제무역 상담회 개최...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격'

**CES 성과 우수 기업 10곳 참여  
투자유치·협약체결 5건 등 성과**

포항시는 지난 1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제6회 미래 신산업 국제무역상담회의 하나로 CES에 참여한 10개 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경북도, 경북 경제진흥원과 함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한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전에 시장 수요와 품목 경쟁력,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ES 참여 기업 중에서 올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미드바르, 플로우스튜디오(주), 2023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그래핀스퀘어(주) 등 10개의 유망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기업은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에 맞춰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등 해외 바이어와 1



대 1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이달 1일 현장에서는 원소프트타임 100만달러, 투엔 10억원 투자유치 등 총 5개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강덕 시장은 "불빛축제에 참여한 해외도시들에게 포항시의 우수한 ICT 경쟁력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글로벌 성장 능력을 갖춘 지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 대구시, DX 산업 인사이트 공유 확산 '힘'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우수기업 초청 강연·지원 사업 공유

대구시는 4일 시민, 기업,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시행 홍보를 통해 지역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DX 산업 트렌드 및 데이터 전문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2024 하노버메세 참여 우수기업(기관) 초청 DX 산업 트렌드 강연 및 토론 △(2부)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및 미니 컨설팅 순으로 진행된다.

1부는 △테라산업 오경진 대표의 'K-Lighthouse Factory' 강연 △UNIST 임성훈 교수의 '스마트 제조와 유럽 Gaia-X 데이터 표준' 관련 강연 △'유럽 데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2부는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안내에 이어 수행사에서 사업 수행 내용 및 일정, 접수 방법, 신청 기

**DX 산업 트렌드 및 데이터 전문 컨설팅 설명회**

일시: 2024.06.04 (목) 14:00~17:00  
장소: A1 국제무역상담회관 3층(경북도청 1호 1601호 대강당)  
문의: 054-979-6244 (대구시 기획경제과, 대구시 중소기업진흥지원과,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문의처: 054-979-6244 (대구시 기획경제과, 대구시 중소기업진흥지원과,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시간	주제	강사
14:00~14:15	환영사	대구시 기획경제과
14:15~14:30	2024 하노버메세 참여 우수기업(기관) 초청 DX 산업 트렌드 강연 및 토론	테라산업 오경진 대표, UNIST 임성훈 교수
14:30~14:45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계획 발표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14:45~15:25	미니 컨설팅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15:25~15:40	2부 (2부) 강연	테라산업 오경진 대표, UNIST 임성훈 교수
15:40~16:10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방향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16:10~16:30	질문응답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16:30~17:00	마무리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신청방법: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홈페이지 (http://data.dg.go.kr) 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간: 2024.06.03(수) 14:00 ~ 2024.06.03(수) 17:00  
신청처: 대구시 데이터산업진흥과 (054-979-6244)

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로 데이터 활용 희망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발굴하려는 공급기업, 예비창업자 등에 데이터 상품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o@daum.net

## 케이메디허브, 보톡스 품질시험 원스톱 지원 '박차'

**생산 원료·포장재 등 안정성 입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보톡스 생산 원료 및 원자재 품질시험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제약생산센터는 국내 보톡스 생산업체 중 국내 최대 공급사

등 5개 사에 보톡스 원료의약품 및 원자재 품질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톡스 제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 규격을 만족하는 품질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케이메디허브 제약생산센터는 △알부민 등 보톡스 동결건조 상태 안정화를 위한 원료의약품 품질시험 △고무

전, 바이알 등 주사제 일차 포장재 16개 원자재 품목의 품질시험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보톡스의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에 지원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여건의 품질시험을 지원했으며 보톡스 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품질시험에 대한 기업의 기술서비스 의뢰는 꾸준

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메디허브 제약생산센터는 보톡스 관련 원자재 및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에 대한 폭넓은 품질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제약생산센터 기술분석지원팀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시험을 제공해 글로벌 보톡스 시장 진출에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o@daum.net

##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할인 선할인→캐시백 적립으로 변경

영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극대화하기 위해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할인 방식을 선할인에서 캐시백 적립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품권 1만원권(할인율 10%)을 1000원 할인받아 9000원에 구매했으나 변경 후에는 상품권 1만원권(적립률 10%)을 1만원으로 구매할 뒤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1000원을 상품권으로 적립 받게 된다. 적립금은 월 최대 4만원 한도에서 적립할 수 있으며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마다 사용하거나 누적했다가 한꺼번에 사용도 가능하다.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시점부터 5년이며 선물하거나 환불, 적립금에 대한 추가 적립은 불가하다. 지류 상품권은 종전과 동일하게 10% 선할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영주 지역 내 59개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용암면 직원들, 농가 수확 '팔 걷어'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3일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용암면 직원 20여명과 함께 용암면 마월리 소재 마늘 농장을 방문

해 수확을 함께 하면서 직원들과 농가가 서로 의미 있는 소통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농가주는 "수확기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 막막했던 상황에 이렇게 용암면 직원들이 방문해 일손을 보태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주민호 면장은 "오늘 일손돕기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 hoyal515@daum.net

사곡면 지보협, 돌봄 플러그 설치



의성군 사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취약계층 1인가구 위기상황 예방을 위해 안심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가정에 가전제품과 연결되는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위험 알림 문자를 전송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의체는 지역 내 1인 가구 중 20가구를 선정해 안심 돌봄 플러그를 직접 설치·지원했다.

이경훈 민간위원장은 "조도의 변화만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power5151@naver.com

# 영주, 더 좋은 근무환경으로 '저출생 극복' 앞장

영주시청·공노조 MOU 체결  
약성민원·직원 보호 등 협약



영주시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4일 시청 강당에서 2024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박남서 시장, 이연직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단체교섭 경과보고,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돼 노사 상호 간 대화와 소통, 설득과 이해를 거듭하며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했다.

근무방식 개선을 통한 직원 휴식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 장려, 약성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 보호가 이번 협약의 주요 목표이다.

또한 △읍·면·동 당직 제택근무 실

시 △비상근무 개선 △육아시간 사용 대상 확대 △포상휴가 확대 △약성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 보호 △새내기 공무원 교육자료 배포 등이 주요 협약 사항으로 담겼다.

전문을 포함한 총칙 및 본문 9장 66조, 부칙 8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서는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윤여상기자bk01410@naver.com](mailto:윤여상기자bk01410@naver.com)

## 경주 어르신 건강 챙기는 든든한 '사랑의 밥차'

市자보센터, 쾌릉리 친절한경자씨와 300인에 점심 봉사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지난 1일 남경주 의동읍 쾌릉리 친절한경자씨와 함께 쾌릉리 지역 내 취약계층 300명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밥차 전담 조리봉사단은 주민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쾌릉부녀회는 현장샐빙, 배식봉사, 행사 뒷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IBK기업은

행이 후원하고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경주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한다.

정재운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사랑의밥차 무료급식사업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만나 소통하고 즐기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우리 경주 지역의 소외되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

겠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mailto: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 동문동새마을회, 복숭아 농가 돕기 '구슬땀'



상주시 동문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에서는 지난 3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신동 소재의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복숭아 봉지씌우기 등 농촌 일손을 도왔다.

김재하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봉사를 하며 도움

이 필요한 곳에 힘이 돼겠다"고 말했다.

이근용 동장은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에 봉사활동을 해주신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 김천 바살은 감천면위원회, 태극기달기운동



김천시 바르게살기운동 감천면위원회는 지난 3일 제68회 현충일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을 펼쳤다.

이날 오명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천면 지역 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했으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조기 게양법도 함께 홍보하는 등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했다.

오명석 위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나라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광수기자kgs5149@naver.com](mailto:금광수기자kgs5149@naver.com)

동 정

동국대 WISE 전반기 소통토론회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5일 오전 10시 10분 경주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WISE) 캠퍼스에서 전반기 현장소통토론회에 참석한다.

경북도식품박람회 참석



주낙영 경주시장은 5일 오후 2시 보문관광단지 내 하이코에서 열리는 경북도식품박람회에 참석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道본부 기탁식



박남서 영주시장은 5일 오후 2시 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도 지역본부 후원금 기탁식에 참석한다.

서부동 도시숲 조성사업 준공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5일 오후 4시 30분 성내철길숲에서 개최되는 서부동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장연합회 가족한마음대회 참석



박현국 봉화군수는 5일 오전 10시 법전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봉화군 이장연합회 가족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봉화 법전중앙초, 사제동행 북크니



봉화군 법전중앙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교내 시울림 동산에서 사제동행 북크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생실습 주간에 맞아 교생 선생님과 3-6학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각자 읽고 싶은 그림책을 골라 함께 읽고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지철 교장은 "학생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지고 교생 선생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성도산업(주)

기계설비·플랜트설비·열병합시설설비·가스시공업(제1종)  
산업용 및 특수가스시설·가스시설물 유지관리

구미시 박정희로19길 24(사곡동)  
전화 : (054)465-9060, 9063  
팩스 : (054)465-9061  
휴대폰 : 010-3519-1835  
E-mail : kjw1835@daum.net

명이 참 도로변을 기를 개 초기 게 선열의





청송우리음식연구회는 회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BEXCO(벅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식품대전을 방문했다.

올해 31번째로 개최되는 부산국제식품대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간 가공식품, 유기농, 급식 및 설비, 포장, 커피를 주제로 꾸며져 350개 국가에서 모인 회사와 700개의 다양한 부스가 참가해 대규모 전시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부산국제식품대전 행사에서는 부산커피쇼와 유기농박람회, 휴대이블테크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유기농식품, 간편조리식품, 고품질화식품 등 최신 식품 트렌드와 식품가공기기, 위생 포장재료 등 다양한 전시행사를 둘러볼 수 있어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역량강화 현장 학습을 통해 청송군 우리음식연구회원들이 능력향상과 함께 새로운 음식개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봉화,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힘’



봉화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물놀이안전관리요원 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북도 물놀이 안전지킴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2024년 경북도 물놀이 안전지킴이 역량강화교육”은 물놀이 사고 사례 및 행동지침, 안전지킴이의 자세에 관한 이론교육과 함께 유사시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어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 7월을 대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난구조능력 배양과 봉화소방서, 봉화경찰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번 여름도 물놀이 인명피해 Zero화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00@hanmail.net

대구보건대-대구의료원, 보건 의료 발전 ‘팔 걷어’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 MOU 상호 협력·연구 등 ‘의기투합’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3일 대구의료원 4층 회의실에서 대구의료원과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구보건대학교와 대구의료원이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남성희 총장과 김시오 의료원장 등 대학과 병원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 기반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 연구, 정보 교환, 학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

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교육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보건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한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보건 의료 발전에 함께 기여하고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을 위한 첫 단추”라며 “반세기 동안 9만 명이 넘는 보건 의료인을 양성해 온

우리 대구보건대와 대한민국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대구의료원이 함께 글로벌 보건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안동 중구동 적십자봉사회, 빵으로 행복 선물

안동시 중구동 적십자봉사회는 지역 내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이들에 걸쳐 경로당에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로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이들에 걸쳐 중구동 경로당 10개소에 직접 만든 빵 300개를 전달했으며 경로당 2개소에서는 적십자봉사회가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중구동 적십자봉사회는 사랑의 빵

나눔 및 고기 나눔 봉사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 돌보기, 집수리 등 꾸준한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중구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천중 회장은 “소외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빵이 따뜻한 선물이 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영수 기자foms7227@nate.com



재경고령초 63회 동문, 고향사랑기부 동행



재경고령초등학교 63회는 지난 1일 고령군 발전과 번영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박찬수 회장을 비롯해 여러 회원이 함께 참석해 기탁식을 더욱 빛나게 했다.

박찬수 회장은 “내 고향 고령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고령이 더욱 힘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경고령초등학교 회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상주 농업직공무원, 화합·교류 한마당 펼쳐



상주시 농업직공무원(회장 김영록) 50여명은 지난 1일 문경대학교에서 경북도 내 농업분야 공무원 간 상호 화합과 지식교류를 통한 선진 농업행정 구현을 위해 개최된 제2회 경북 농업직공무원 한마당대회에 참가했다.

상주시 농업직공무원들은 1, 2부로

나눠 참가한 체육행사에서 소통과 단합된 모습으로 제1회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강영석 시장은 체육행사에 직접 참가해 상주시 농업직공무원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임찬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김천 양금동 통장협, 농가 일손 돕기



김천시 양금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3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

25명의 양금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양천동에 소재한 농가의 복숭아밭을 방문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봉지씌우기 작업을 했다.

정호동 협의회장은 “에타는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일손 돕기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구슬땀을 흘려주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진태술 동장은 “오늘 뜨거운 햇볕 아래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양금동 통장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 사회와는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영덕교육청, 유·초등 교사 역량 UP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유·초등 수업전문가(수업연구교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2024학년도 유·초등 수업전문가(수업연구교사)를 신청한 지역 유·초등교사 6명과 초등 수석교사 및 담당 장학사가 참석해 2024학년도 유·초등 수업전문가 활동 관련 협의 및 컨설팅 순으로 진행됐다.

윤인한 교육장은 “수업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는 만큼 교사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해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Yes 문경



# 대구 현대아울렛 '눈이 즐거운 일상' 만나다

대구예술발전소 협업전시 개최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  
14기 입주작가 5인 작품 선배  
종교·문학·풍경 등 소재 다채  
문화예술의 경제력 창출 '힘'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발전소는 현대아울렛 대구점과의 협업 전시 '일상에찬' 展을 오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현대아울렛 대구점 1, 2층

에서 개최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현대아울렛 대구점은 지속적인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회 제공과 창작 작품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두 기관은 이번 기획 전시로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번 전시는 대구예술발전소 14기 입주작가 5인(김상덕, 임도, 장규규, 정재엽, 허주혜)의 작품 세계로 초대한다. 회화의 소재로 종교, 역사, 문학에서부터 풍경, 사물 등 일상적 모습까지 쓰

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대미술과 그것을 바라볼 때 겪는 낯설고 어려움의 감정을 주목한다. 특히 작품이 설치되는 예술적 공간과 일반적으로 아울렛이 가지는 일상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현대아울렛 대구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현대 미술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시의 환경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순태 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예술과 경제는 시대가 변화하며 다양한 형태로 성장해 왔다. 예술 또한 관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장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며 "현대아울렛 대구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게 된 이번 전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며 작품의 유통으로까지 이어져 예술이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상에찬' 전시는 현대아울렛 대구점 1, 2층에서 아울렛 운영 시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강두용기자wondrumkakao@daum.net



### 구미 뜨겁게 달군 '유키 구라모토'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 성공적

한국어 해설 등 관객 재미 쏠쏠  
구미문화회관 음향 시설 '극찬'

구미에서 열린 '유키 구라모토 내한 25주년 기념 콘서트'가 성료됐다. 국내 데뷔 25주년을 맞은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의 구미 방문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공연은 평일 저녁 공연임에도 1200석 가까이 되는 구미문화회관 대공연장 좌석 판매 3일 만에 매진시키며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1부는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솔로 연주로 '메디테이션', '로망스' 등 그의 대표곡들로 잔잔하고 따뜻한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2부에서는 '레이크 루이스', '포레스트' 등을 편곡해 바이올린 윤여영, 첼로 이윤하, 플룻 한지은, 클라리넷 강신일과 함께 더욱 풍성한 연주를 들려줬다. 연주 중간 중간 유키 구라모토가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곡 설명을 하는 공연의 또 다른 묘미다. 이날 '코티지 포 더 레빗(Cottage For The Rabbit)' 곡을 설명할 때 주제가 '거북이'가 아닌 '토끼'여서 미안하다는 제지 있는 멘트를 관객들을 웃음 짓게 했다. 이정오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유키 구라모토는 우리 공연장이 정말 아름답고 음향이 훌륭하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하겠다"며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여름 맞이 특집 기획 가족뮤지컬 수박 수영장이, 7월 27일에는 국립 현대무용단 '여자가 여자가'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박익분기자ub0104@hanmail.net

**7 호호세가연구소 유정 정운숙의 수유문화칼럼 - 풍류의 정신 사군자**

진순, 화훼도, 무석시박물관.

## 명(明) 새물결 광달자방의 사군자(31)

(狂達自放)

진순, 사계화훼도(일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진순, 묵국.

문인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다. 그 공간에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과 철학이 문인들의 정신과 함께 이루어져 있음을 문인화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사군자의 전통 기법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화용필(書畫用筆)의 필법은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수묵(水墨)의 농(濃), 담(淡), 건(乾), 습(濕)은 사군자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붓의 필법이다. 문징명(1470-1559년)이 서법을 중하게 여기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창의적이고 자연과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했으며 독자적인 화풍을 이뤘다. 수묵 화조화와 수묵사(水墨寫意) 화법으로 알려졌고 글, 그림이 출중해 호가 '백양산인'으로 '백양정 등'이라 칭해졌다. 작품에는 품격과 기품이 있었으며 문인의 학문에 바탕이 되는 용필을 보여줬다. 이후 사의 화법은 청동거사 서위에 계로 영향을 주게 된다.

수묵 화조화와 수묵사(水墨寫意) 화법으로 알려졌고 글, 그림이 출중해 호가 '백양산인'으로 '백양정 등'이라 칭해졌다. 작품에는 품격과 기품이 있었으며 문인의 학문에 바탕이 되는 용필을 보여줬다. 이후 사의 화법은 청동거사 서위에 계로 영향을 주게 된다.

## 조선 문신 강흡의 혼 담긴 '이오당' 문 활짝

봉화 법전면 소재, 정자문화 알려  
조선후기의 문신인 잠은 강흡의 위패를 모신 사당 '이오당' (봉화군 법전로 103-4)이 강신창 종손의 개인일 알림으로 올해 공식적인 첫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오당 기문해석집' 증정과 문중 종회소 수리완료 보고, '이오당과 정자사색길' 선정 설명 및 봉화 정자와 정신문화에 대한 토론 진행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채워졌다. 이후 '법계서실'과 '경제정'을 잇는

정자사색길을 직접 걸어보는 것으로 개문식이 마무리됐다. 이오당의 후손인 강필구 후손은 "봉화의 자랑인 정자와 정자문화 체험은 인류의 본질이며 한국 문화의 정수이기"에 공동체 의식과 교양의 결집인 이오당 개문식을 통해 현대인의 피폐한 정신세계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숙 면장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요즘 시대에 이오당이야말로 현대인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존재다"면서 "연구대상인 문화재로서의 단순한 역할을 뛰어넘는 이오당의 개문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기자jhy4430@hanmail.net

## 7·8일 '배리어 프리 오페라' 안동서 막 올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도록 공연장 시설 개선, 공연 감상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접근성 제공을 통해 무장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장애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 프리 오페라 '버섯개떡'이 오는 7일과 8일 오후 2시 2회에 걸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블랙코미디 오페라 '버섯개떡'은 미국의 작곡가 세이무어 바랍의 작품 '버섯피자' (La pizza con funghi)를 최상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이 안동의 정서에 걸맞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변안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안동시의 202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기념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무장애 활성화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배리어 프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는 무장애 활성화를 위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그림자 통역 기법이 적용된 수어 해설, 시각 장애인 위한 음성해설 수신기 및 점자 리플렛 등 보조 감상 수단이 제공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무장애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해부터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콘서트', 창작연극 '하늘 바람 바다' 등 배리어 프리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연 이외에도 오는 8월 '하늘 바람 바다'의 새로운 시즌 공연, 10월의 배리어 프리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 등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배리어 프리 오페라 '버섯개떡'은 전석 2만원으로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 (http://www.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칼럼

### 미국인 전기차 안 사는 진짜 이유 알고 보나...

박형기  
뉴스1 중국전문위원



미국인들이 최근 들어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소비가 급감한 것은 얼리어답터들이 이미 전기차를 대부분 구입했고 충전의 번거로움 등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치적 이유도 한몫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SJ이 모건섀넬링에 의뢰해 미국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40%가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에 부정적인 응답자 중 38%는 정치적 견해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 중 63%는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 지배를 꼽았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전기차 대신 휘발유 차를 계속 타겠다는 얘기가.

최근 난기류로 비행기가 급강하, 승객이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기후변화는 전 인류에게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전기차를 의무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미국인들은 중국의 지배가 싫어 전기차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사실 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은 중국 등 개도국이 아니라 영미 등 선진국이다.

선진국은 이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꺼리는 것은 책임 있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는 등 자유무역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전 세계에 퍼트리는 등 '자유무역 챔피언'을 자임했다. 그러나 자국이 불리하자 보호무역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이 자유무역 챔피언이라는 명성에는 흠집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가 자유무역 챔피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전벽해의 변화다. 그동안 자유무역 챔피언

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그 훈장을 내려놓으려 하는데 비해 중국은 이를 기꺼이 받으려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산업 분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기차는 물론 태양광 부문에서도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이어 다음은 녹색에너지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 압력을 강화하자 그린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결정하고, 집중투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중국에 대규모 관세 폭탄을 퍼부은 것이 미중 패권전쟁의 시작이다.

이후 만 6년이 지났다. 미국의 집중적인 공격에 중국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출길이 막혀 경기가 둔화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망하지는 않고 있다.

만약 미국이 한때 미국의 부동산을 매집하는 등 미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했던 일본에 6년간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면 일본은 이미 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니다. 14억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파산 공세를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전쟁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사이 중국은 망하거나 아니면 각종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하나둘씩 추월해 미국의 패권을 정말로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뉴스1

독자기고

###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청해 본다

김수연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동대구역 광장에는 시선을 강탈하는 기후 시계(5년 57일 16:42:50, 5월 26일 18시 02분 기준)가 있다. 표시된 수치에 등골이 오싹했다. 수치가 크지 않아 더 다급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도의 숨을 쉬는 이유는...

지난달 5월 1일-4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세계 바리스타들과 함께 하는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의 향연이 있었다.

유럽 최대 스페셜티 커피 전시회 '월드오브커피'의 아시아 첫 런칭과 월드오브커피부산과 더불어 전 세계 바리스타의 올림픽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이 함께 개최됐다.

그리고 같은 달 5월 24일-26일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이 부산 아미르 공원에서 열렸다. 두 곳 모두 기분 좋은 행사였다.

요사이 신조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삶이었는데 그 날만은 기쁨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절만 하면 오는 2080년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때 같았으면 종이컵이 바닥을 뒹굴고 펠트(PET)가 쌓이는 등 일회용품 가득한 행사장. 불편한 인상을 감출 수 없었을 텐데 금년(今年)은 달랐다.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에서는 시음 잔(리유저블 컵)을 배부하는 등 지난해와는 사뭇 달랐다.

역시 커피도시 부산의 지속가능한 커피를 위한 모드 전환은 민첩했다.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맞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현장에서 목격하니 실로 놀라웠다.

지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한 날로 해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한국인 하루 커피소비는 36.3%가 2잔, 35.6%는 1잔을 마신다는 자료로 유추하면 그 날도 어김없이 출근 길 모닝 커피를 아집을 맞을 것이고 점심식사 후 종이 컵을 하나씩 들고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청해 본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은 종이컵 없는 커피 한 잔 어떻게?

혹자들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집에서 텀블러를 가지고 나오는 걸 깜빡한 경험이 많다고 한다. 그린피스 홍콩사무소는 따로 컵을 가져오지 않은 시민들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재사용 컵 대여 및 반환 앱'을 출시했다.

지난 2022년 그린피스는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해 재사용 컵 프로그램을 진행해 행사 기간 동안 88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절약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의 초석이 될 벤치마킹. 우리도 어떻게?

청해 본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종이컵 없는 커피 한 잔, 함께해요. 우리".

사설

### 오물풍선 도발, 미사일보다 컷다

북한이 닷새간 두 번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쪽을 향해 살포했다. 풍선이 싼고 온 심리적 도발의 크기는 비슷한 시기 감행된 군사정찰위성·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보다 컷다는 평가다.

지난 3일 북한 국방성에 따르면 북한이 5월 28일부터 전날까지 살포한 오물풍선은 총 3500여개, 15t 규모다. 오물풍선은 점경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으로 퍼졌고 이에 따라 여객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차량 파손·화재와 같은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오물풍선은 담배꽂초, 폐종이, 천조각, 비닐 등 생명이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오물·쓰레기로 구성됐다. 그럼에도 미사일·위성과 달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풍선을 목격하게 되면서 체감하는 효과는 더 컷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SNS에 풍선 관련 목격담과 영상·사진이 다수 게재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물풍선의 심리적 파장이 컷던 것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위성이나 바다에 떨어지는 미사일 도발과 달리 학교, 도로, 차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됐다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살상무기가 될 수 있었다.

특히 과거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는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문제에 국한됐던 것에 반해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전 국민의 일상을 위협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꼽은 이번 도발의 특징이다.

홍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남전단을 보낸 경우가 있지만 내륙 깊숙이 일상 현장 곳곳에 뿌린 경우는 처음"이라며 "생화학 무기, 폭탄, 세균 등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려를 가져왔다"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정찰위성은 무기로서의 위력은 있으나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는 아니었다"라며 "오물풍선은 무기가 아니면서 무기와 같은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컷다"라고 말했다.

오물풍선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출현 때처럼 실시간으로 맞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점타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세운 방침에 따른 응징을 하지 못한 채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추적·감시만 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1000개 넘게 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안에 세균, 화학물질 등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격할 수도 없다.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북한은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중단 의도에 관한 엇갈린 해석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의 조치에 따라 오물풍선, GPS 교란을 포함해 군사적 도발까지 추가로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동원 동아대 교수는 "북한에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잠정 중단하고 남쪽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물풍선) 대응주체가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에서 국방성으로 넘어간 것은 남한 내 추가적 행동이 있으면 북한도 군사적 도발을 할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확전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고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도가 충분했다고 보고 중단한 것이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북한이 두 개의 적대국 국가임을 보여 주는, 가성비 높은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진실성요강을 준수합니다.	


#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약속입니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